

● 일본의 양계소식

산란계

□ 전년을 밀돌 것으로 예상되는 계란가격

전국농협중앙회 계란센터는 최근의 계란수급사정, 예상계란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생산동향은 2002년도 입추 수자가 높아 2003년의 계란 생산량은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입추수가 증가하여 초여름 이후에는 소란생산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균형의 유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군 사양가의 증산계획으로 밀어내기가 본격화되면 하반기 이후 공급과잉에 의한 수급불균형 국면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닭 질병발생이 수입량에 주는 영향이 없고 국내에서의 난백제도가 과잉상태이며 난황을 중심으로 한 가공란의 수입량은 안정되고 있다. 또한 난각이 있는 수입란은 브라질산이 월 100~200톤의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정체에 따라 개인소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특히 작년 가을부터 판매부진이 현저하다. 이 불투명한 경제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낮고 대형매장도 수익보전을 위하여 대량특별판매를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외식·중식산업 등의 수요도 저가전략이 막히어 판매신장도 없고 가공분야에서도 소비부진에 의한 할란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에 활황을 보였던 전계란의 수요도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동향은 강제환우계의 산란개시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대란중심의 도매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연휴가 끝난 후 수요정체에 의한 계란정체에 따라 도매가격은 145엔(1,450원/10개)을 지나 작년을 크게 밀도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대군 사양가의 증산으로 생산량은 고수준이 될 것이 예상되고, 불투명한 경제 환경속에서 수요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공급과잉·수요부진에 의한 수급균형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대량생산이 시작되는 하절기에는 소란의 수급균형이 전년과 같이 견실한 추이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도매가격과 거래량은 작년을 밀도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양과 질 모두 판매에 맞는 생산체제의 구축이 급선무이다(계명신문 발췌).

□ 허브란 판매

닛세이(日清)사료(주)는 허브사업브랜드(허브촌)의 설립에 맞추어 허브란 전용사료로 사육한 특수란「허브로 건강! 식물사랑의 빛!」을 3월1일부터 판매하였다. 이 상품은 갈색란 10개 포장으로 희망소비자 가격은 1팩 298엔(2,980원)이며 품미기간은 채란일로부터 14일이다. 닭에게 급여하는 허브전용사료는 식물성단백질과 계피, 육두구, 백리향 등의 허브가 배합되어 있다.

「식물사랑의 빛」에는 (1)식물성단백질원료와 자연허브를 급여하여 맛이 깨끗하고 계란본래의 맛을 내며, (2) 200-420일의 젊은 닭이 생산한 계란을 포장하고 있으며, (3)닛세이위생관리시스템(닛세이HACCP)에 기초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갈색란 10개를 300엔(3,000원)정도로 비싸다는 이유로 특수란을 별로 구입하지 않았던 젊은 주부라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표.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125	130	128	120	115	55	1,590t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목 계

□ 중국, 독일산 가금육류 일시 수입금지

각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금페스트)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성은 중국산 오리고기로부터 바이러스가 분리되어 공식적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 「가금페스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5월 12일부로 중국산 가금육류의 수입을 일시 정지시켰다. 양국간 체결한 가축 위생조건에서는 해제의 조건에 「수출국에는 과거 90일간 이상 가금페스트의 발생이 없는 것」이 들어 있어 중국측이 발생을 인정하고 청정화된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그 확인에는 일본측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하고 해제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독일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농림수산성생산국 가축위생과는 5월 10일 독일에서의 가금육류 수입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것은 5월 9일 독일 가축위생국으로부터 독일 놀드라인웨스트파렌주의 육용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질병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조류 인플루엔자의 일본내 침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0일부터 수입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이 질병에 의해 유럽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수입정지는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3번째이다.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는 가금페스트로 확인된 경우 독일에서의 가금페스트가 청정화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U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독일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주로부터 국내외로의 닭고기나 계란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한편 사람에게로의 감염방지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독일로부터 가금육관계의 수입은 없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산란계원종계나 종계를 수입하고 있어, 유럽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길어지면 특히 산란계업계에 영향을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 산란계농장에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어 지난 4월 28일부터 일시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로드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의 2개주이다(계명신문 발췌).

□ 갈색브로일러「그리모드 슈퍼레드」판매개시

중부산업(주)는 6월부터 프랑스 그리모드사의 갈색브로일러 종계「그리모드 슈퍼레드」의 수입판매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리사업을 시작으로 금년 창업 35주년을 맞는 프랑스그리모드사는 10년전부터 브로일러의 육종개발사업을 시작하여, 3년전부터 전세계로 판매를 시작한 그리모드사는 유색깃털의 브로일러로 황반프리머드룩 타입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대형브로일러가 이번에 수입판매하는 갈색브로일러인「슈퍼레드」이다. 10주령의 수컷평균체중은 3.0kg 이상이며 개량의 가장 큰 특징은 합성계로서 적색 브로일러는 수컷이 갈색깃털로 레드코니쉬계의 L-11, 암컷은 레드룩계의 GL-86, 실용브로일러의「슈퍼레드」는 63일령에 암수 평균체중이 2.73kg 사료요구율 2.48 10주령에는 3.0kg이상이 된다. 중부산업에서는「종계의 산란성적도 좋아 45주간 종란 184개를 낳고 부화율도 좋으며 고기는 노란색 피부에 적색계의 맛있는 고기가 된다. 이미 인터대기업회사와 접촉이 있었고 6월부터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의 별도 판매도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